

관악구 보육교사의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실태 : 영아반과 유아반의 비교

여윤재¹⁾²⁾ · 권수연³⁾ · 윤지현^{1)2)3)†}

¹⁾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³⁾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Teachers' Participation and Mealtime Instruction in the Food Service at the Kwanak-gu Child-care Centers: Comparison between Child-care Teachers Caring Different Age Groups, Children Younger than Three Years and Those Three Years or Older

Yoonjae Yeoh¹⁾²⁾, Sooyoun Kwon³⁾, Jihyun Yoon^{1)2)3)†}

¹⁾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²⁾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³⁾Geumcheon-gu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child-care teachers participate, practice mealtime instruction, and perceive difficulties in food service,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the teachers caring two different age groups: children younger than three years (Younger Group) and those three years or older (Older Group).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51 child-care centers in Kwanak-gu, Seoul, Korea during December, 2011. Only the data from 25 child-care centers, where two respective teachers in charge of Younger Group and Older Group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erms of child-care teachers' participation in food service practice between the two groups, except for serving method; 'Pre-plated' serving was used significantly more often in Younger Group, whereas 'Line-up' serving was used in Older Group. Approximately, three quarters of the child-care centers had policies or guidelines on mealtime instruction. During mealtime, child-care teachers tended to use frequently verbal instructions such as "sit up straight when you eat" about eating manner, "don't be picky with your food" about eating habit, and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about eating procedure in both the group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difficulties in food service between the two group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care teachers' participation and mealtime instruction in food service did not differ between the two age groups, although children's development of digestion and eating skill differed by age. Therefore, training should be provided to child-care teachers about food service practices and mealtime instruction appropriate to children's age. (*Korean J Community Nutr* 18(2) : 112~124, 2013)

KEY WORDS : child-care teachers · mealtime instruction · food service practice · child-care centers

접수일: 2012년 10월 24일 접수

수정일: 2013년 3월 5일 수정

채택일: 2013년 4월 9일 채택

†Corresponding author: Jihyun Yoo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02) 880-8750, Fax: (02) 884-0305

E-mail: hoonyoon@sn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이 시기는 전 생애 중에서 신체의 성장 발육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며 활동량이 많아 체중 당 영양소 및 열량의 필요량이 성인에 비해 높다. 이 시기에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장애 또는 영양결핍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되고 나아가서는 일생동안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e 등 2007). 또한 영유아기는 식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식품에 대한 기호도가 명확해지며 고착화되기 때문에 성인기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Lee 등 2011). 이처럼 영유아기는 일생의 건강에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므로 영유아는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적절한 영양공급과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습관 지도 및 교육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이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1970년에 430개였던 어린이집이 2011년에 39,842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a).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약 360만 명의 영유아 중 약 1/3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a; Statistics Korea 2011).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이며, 보육시간은 평일 12시간, 즉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부모가 내는 보육료에는 종사자 인건비, 교재 교구비, 관리 운영비 외에 1회의 식사와 2회의 간식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점식식사와 오전 및 오후 간식을 영유아에게 제공해야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b). 또한 어린이집은 평일 12시간 운영되는 기본 보육 외에 맞벌이 부부의 욕구 만족을 위하여 시간연장 보육,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등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영유아들은 기본 보육시간 종료 후 24시까지 어린이집에 머물게 되며 저녁식사 및 간식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는다. 이처럼 영유아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는 곳이 가정이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영유아의 영양섭취와 식습관 형성에 어린이집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는 급·간식의 배식을 담당하며 식사지도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식습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보육교사의 대부분은 급식시간 중에 식사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Rho 등 2010), 보육교사의 영양지식 수준이 낮고 식사지도 관련 교육 및 연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ong & Heo 2010).

만 2세까지의 영아와 만 3세 이상의 유아는 일반적으로 영유아로 통칭되고 있으나 신체·운동 발달, 사회성·정서 발달, 인지 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다(You & Cho 2009). 1~2세 영아는 숟가락 사용이 서툴지만, 4세의 유아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2세의 영아는 혼자서 식사하는 것이 어렵지만, 4세의 유아는 혼자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식탁을 닦거나 차리는 일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Lee 등 2011). 이처럼 영아와 유아의 신체적 성장 및 인지적 발달 수준의 차이가 식행동, 식사 기술 등에 반영되므로 어린이집의 급식 운영 및 식사지도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실태에 대한 연구(Rho 등 2010)와 어린이집의 급식 및 영양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Lee 등 2001)를 통해 어린이집의 식사지도가 보육교사에 의해 급식시간 중에 식사예절, 위생 등의 주제로 수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식사지도에 있어서 영아반과 유아반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급식관리 실태(Chang 등 2008) 및 위생관리 실태(Bae 등 2009; Song & Kim 2010)에 대한 연구였으며, 이 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식품 및 영양섭취 평가(Chung 등 2000; Choi 등 2008) 등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할 때 실시하는 식사지도의 실태 또는 보육교사가 느끼는 식사지도에 대한 어려움 등과 관련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의 시설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보육교사의 담당연령별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악구 지역 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실태, 보육교사가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수행 중에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이를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육교사가 체계적으로 배식서비스를 수행하고 효과적인 식사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악구 소재 어린이집 한 곳 당 만 0~2세의 영아를 담당하는 영아반 보육교사 한 명, 만 3~5세의 유아를 담당하는 유아반 보육교사 한 명이 설문문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관악구보육정보센터의 협조로 2011년 12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보육통합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을 통해 관악구 내 271개소의 어린이집 중 영아반과 유아반을 모두 운영하는 151개소의 어린이집에 30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보육교사의 일반사항, 보육교

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배식서비스와 관련한 일반 현황, 보육교사의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실태, 보육교사가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시 느끼는 어려움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책자(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b)와 아일랜드의 어린이집 운영자를 대상으로 급식운영에 대해 조사한 Jennings 등(201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2011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관악구보육정보센터 내 보육경력 5년 이상인 보육전문요원 세 명과 현직 보육교사 여섯 명에게 작성된 설문지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 조사에서 언급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보육교사의 일반사항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유형, 연령대, 근무경력, 돌보는 영유아의 수를 포함한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배식서비스와 관련한 일반 현황은 급식 제공시간, 급식 섭취시간, 급식장소의 세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보육교사의 배식서비스 참여 실태는 배식 준비시간, 배식 참여 여부 및 배식 방법, 영유아와 동일한 메뉴를 섭취하는지의 여부, 영유아와 동반하여 급식을 섭취하는지의 여부를 포함한 다섯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실태는 식사지도와 관련한 지침의 보유 및 수행 여부, 어린이집 식사지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식사지도 시 사용하는 문장의 세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어린이집 식사지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한 네 개의 문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답하도록 하였다. 식사지도 시 보육교사가 사용하는 문장을 조사하기 위해 식사지도의 영역을 식사예절, 식습관, 영유아의 식사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식사지도 문장을 제시하였다. 총 24개의 식사지도 문장을 제시하였으며 응답자가 각 문장의 사용 정도에 대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2점)’, ‘가끔 사용한다(3점)’, ‘자주 사용한다(4점)’, ‘항상 사용한다(5점)’로 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응답자가 제시된 문장과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을 사용한 경우도 사용 정도에 포함시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보육교사가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시 느끼는 어려움은 다른 보육활동과의 스트레스 수준 비교, 자신이 인지한 어려움, 돌보는 영유아 수의 적절성, 도움 인력의 필요성을 포함한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수행과 다른 보육활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대집단 활동, 소집단 활동, 특기 활동 등 아홉 개의 보

육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응답자가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의 스트레스를 제시된 보육활동보다 ‘스트레스가 강하다’ 또는 ‘스트레스가 약하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조사기간 중인 2011년 12월에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또한 각 어린이집 영아반 한 부, 유아반 한 부, 총 두 부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맞지 않게 제출한 어린이집에 제출을 다시 요청하여 2012년 2월에 추가적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대부분의 설문지는 보육통합시스템으로 회수되었으며 나머지는 FAX, 메일, 방문 및 현장제출로 회수되었다.

설문지가 배포된 어린이집 중 74개소에서 총 135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44%). 어린이집 한 곳의 영아반과 유아반에서 이루어지는 보육교사의 배식서비스 참여와 식사지도 실태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 영아반과 유아반 설문지를 모두 보낸 어린이집의 설문지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25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회수한 영아반 25부, 유아반 25부, 총 50부였다.

선택된 자료는 SPSS ver. 19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조사된 모든 항목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카이제곱검정 또는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응답자의 일반 사항

설문에 응답한 보육교사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 48%, 국공립어린이집이 40%, 가정어린이집이 12%였다. 응답자의 80%가 20~30대였다. 영아반 보육교사의 경우 20대가 24%, 30대가 48%, 40대 이상이 28%를 차지하여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유아반 보육교사의 경우 20대가 48%, 30대가 40%, 40대 이상이 12%를 차지하여 20대가 가장 많았다.

응답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36.0%)을 근무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7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가 영아반을 담당하는 경우는 36%로 유아반을 담당하는 경우(16%)보다 많은 편이었다. 보육교사는 평균 10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으며 최소 2명, 최대 22명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반 보육교사는 평균 6명, 최대 16명의 영아를, 유아반 보육교사는 평균 13명, 최대 22명의 유아를 돌보고 있었으며, 돌보는 영유아수에 있어서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ing teachers at child-care centers

Characteristics		Total (n = 50)		Children in charge				p ¹⁾
				younger than 3 years (n = 25)		3 years or older (n = 25)		
		n	%	n	%	n	%	
Type of working facilities	National or public	20	40.0	10	40.0	10	40.0	1.00
	Private, Institution-based	24	48.0	12	48.0	12	48.0	
	Private, Home-based	6	12.0	3	12.0	3	12.0	
Age, years	20s	18	36.0	6	24.0	12	48.0	0.11
	30s	22	44.0	12	48.0	10	40.0	
	40s	9	18.0	7	28.0	2	8.0	
	50s ≤	1	2.0	0	0.0	1	4.0	
Years in child care center	<1	5	10.0	1	4.0	4	16.0	0.51
	1 ≤ and < 3	7	14.0	4	16.0	3	12.0	
	3 ≤ and < 5	18	36.0	8	32.0	10	40.0	
	5 ≤ and < 7	7	14.0	3	12.0	4	16.0	
	7 ≤ and < 9	3	6.0	2	8.0	1	4.0	
	9 ≤	10	20.0	7	28.0	3	12.0	
				Mean (SD)				p ²⁾
		9.68 (5.60)		6.48 (2.74)		12.88 (5.93)		< 0.01
				Range				
		2 – 22		3 – 16		2 – 22		

1) By chi-square test, 2) By t-test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food service at child-care centers

Characteristics			Total (n = 50)		Children in charge				p ¹⁾
					younger than 3 years (n = 25)		3 years or older (n = 25)		
			n	%	n	%	n	%	
Service time	Morning snack	9:00~9:30	2	4.0	1	4.0	1	4.0	0.68
		9:30~10:00	21	42.0	9	36.0	12	48.0	
		10:00~10:30	27	54.0	15	60.0	12	48.0	
	Lunch	11:30~12:00	14	28.0	10	40.0	4	16.0	0.05
		12:00~12:30	36	72.0	15	60.0	21	84.0	
	Afternoon snack	3:00~3:30	12	24.0	7	28.0	5	20.0	0.79
		3:30~4:00	30	60.0	14	56.0	16	64.0	
		4:00~4:30	8	16.0	4	16.0	4	16.0	
Duration of meal time	Morning snack	< 10 min	6	12.0	3	12.0	3	12.0	0.66
		10 ≤ and < 15 min	20	40.0	11	44.0	9	36.0	
		15 ≤ and < 30 min	23	46.0	10	40.0	13	52.0	
		30 min ≤	1	2.0	1	4.0	0	0.0	
	Lunch	10 ≤ and < 15 min	2	4.0	1	4.0	1	4.0	0.53
		15 ≤ and < 30 min	14	28.0	9	36.0	5	20.0	
		30 ≤ and < 45 min	27	54.0	11	44.0	16	64.0	
		45 min ≤	7	14.0	4	16.0	3	12.0	
	Afternoon snack	< 10 min	2	4.0	1	4.0	1	4.0	0.82
		10 ≤ and < 15 min	14	28.0	8	32.0	6	24.0	
		15 ≤ and < 30 min	31	62.0	14	56.0	17	68.0	
		30 min ≤	3	6.0	2	8.0	1	4.0	
Service area	Snack	Classroom	50	100.0	25	100.0	25	100.0	NA
		Other places	0	0.0	0	0.0	0	0.0	
	Meal	Classroom	47	94.0	24	96.0	23	92.0	0.50
		Other places	3	6.0	1	4.0	2	8.0	

1) By chi-square test

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2. 어린이집 배식서비스의 일반 현황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배식서비스의 일반 현황은 Table 2와 같다. 오전 간식은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오후 간식은 3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영아반과 유아반 간에 간식제공 시간의 차이는 없었다. 점심식사는 12시부터 12시 30분 사이에 제공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영아반의 경우 11시 30분부터 12

시 사이에 배식하는 경우(40%)가 유아반(16%)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및 오후 간식을 먹는 데는 15분~30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유아반에서 오전 간식을 먹는데 15분~30분이 소요되는 경우가 52%로 영아반(40%) 보다 더 많은 편이었다. 영아반과 유아반 모두에서 점심식사는 30분~45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어린이 집에서 간식과 점심식사는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Table 3. Current status of teachers' participation in the food service at child-care centers

Items		Total (n = 50)		Children in charge				p ¹⁾
				younger than 3 years (n = 25)		3 years or older (n = 25)		
		n	%	n	%	n	%	
How long it takes to prepare in food service? (n = 50)								
Morning snack	< 10 min	31	62.0	17	68.0	14	56.0	0.67
	10 ≤ and < 15 min	14	28.0	6	24.0	8	32.0	
	15 min ≤	5	10.0	2	8.0	3	12.0	
Lunch	< 10 min	12	24.0	6	24.0	6	24.0	0.50
	10 ≤ and < 15 min	20	40.0	10	40.0	10	40.0	
	15 min ≤	18	36.0	9	36.0	9	36.0	
Afternoon snack	< 10 min	27	54.0	15	60.0	12	48.0	0.68
	10 ≤ and < 15 min	18	36.0	8	32.0	10	40.0	
	15 min ≤	5	10.0	2	8.0	3	12.0	
Whether teachers participate in serving as server? (n = 39) ²⁾								
	Yes	36	92.3	18	85.7	18	100.0	0.25
	No, Food service employees	2	5.1	2	9.5	0	0.0	
	No, Others	1	2.6	1	4.8	0	0.0	
What kind of serving methods teachers use? (n = 39) ²⁾								
	Pre-plated	24	61.5	19	90.5	5	27.8	< 0.01
	Line-up	11	28.2	2	9.5	9	50.0	
	Others	2	5.1	0	0.0	2	11.1	
	No response	2	5.1	0	0.0	2	11.1	
Whether teachers eat the same menu with children? (n = 50)								
Morning snack	Yes	47	95.9	25	100.0	22	91.7	0.34
	No, Eat modified menu	1	2.0	0	0.0	1	4.2	
	No, Do not eat	1	2.0	0	0.0	1	4.2	
Lunch	Yes	37	75.5	20	80.0	17	70.8	0.52
	No, Eat modified menu	12	24.5	5	20.0	7	29.2	
	No, Eat menu for teachers	0	0.0	0	0.0	0	0.0	
Afternoon snack	Yes	49	100.0	25	100.0	24	100.0	NA
	No, Eat modified menu	0	0.0	0	0.0	0	0.0	
	No, Do not eat	0	0.0	0	0.0	0	0.0	
Whether teachers sit and eat with children in mealtime? (n = 50)								
	Yes	47	94.0	22	88.0	25	100.0	0.11
	No, Eat when before and after mealtime of children	3	6.0	3	12.0	0	0.0	

1) By chi-square test

2) Only the case of snack and meal served by staff.

3. 보육교사의 배식서비스 참여 실태

보육교사의 배식서비스 참여 실태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보육교사가 배식을 준비하는 데 오전 및 오후 간식의 경우에는 10분 미만, 점심식사의 경우에는 10분~15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의 배식 담당자는 보육교사(92%)가 대부분이었다. 유아반은 모든 보육교사가 배식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영아반은 보육교사 외에 조리종사자 등이 배식을 담당하는 경우가 3건(14%) 있었다. 배식방법을 조사한 결과,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영아반 보육교사는 대부분(91%) 식판에 음식을 미리 담아서 배식하였고, 유아반 보육교사는 유아들을 배식라인에 줄을 세워 음식을 배식하는 비율(50%)이 가장 높았다($p < 0.01$).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동일한 메뉴의 간식 및 점

심식사를 하고 있었다. 오후 간식의 경우, 모든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동일한 메뉴의 간식을 먹는다고 하였으나 오전 간식의 경우, 유아반 보육교사 두 명은 메뉴 추가 또는 조리법 변경 등으로 메뉴에 변화가 있다 또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점심 메뉴의 경우에도 보육교사가 영유아와 동일한 메뉴로 먹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75%), 영아반 보육교사 다섯 명(20%), 유아반 보육교사 일곱 명(29%)은 영유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메뉴를 섭취하나 메뉴 추가 또는 조리법 변경 등으로 메뉴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아반 보육교사 세 명(12%)은 영아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지 않고 영아가 식사하기 전 또는 후에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Table 4. Current status of policies or guidelines on mealtime instruction at child-care centers

Items			Children in charge						p ¹⁾
			Total (n = 50)		younger than 3 years (n = 25)		3 years or older (n = 25)		
					n	%	n	%	
Existence of policies or guidelines on mealtime instruction	Don't be picky with your food	Yes	39	78.0	19	76.0	20	80.0	0.22
		No	9	18.0	6	24.0	3	12.0	
		No response	2	4.0	0	0.0	2	8.0	
	Sit up straight when you eat	Yes	39	78.0	19	76.0	20	80.0	0.22
		No	9	18.0	6	24.0	3	12.0	
		No response	2	4.0	0	0.0	2	8.0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Yes	43	86.0	22	88.0	21	84.0	0.33
		No	5	10.0	3	12.0	2	8.0	
		No response	2	4.0	0	0.0	2	8.0	
	Chew your food carefully	Yes	39	78.0	19	76.0	20	80.0	0.22
		No	9	18.0	6	24.0	3	12.0	
		No response	2	4.0	0	0.0	2	8.0	
	Use spoons and forks correctly	Yes	38	76.0	18	72.0	20	80.0	0.16
		No	10	20.0	7	28.0	3	12.0	
		No response	2	4.0	0	0.0	2	8.0	
Practice of policies or guidelines on mealtime instruction	Don't be picky with your food	Yes	50	100.0	25	100.0	25	100.0	NA
		No	0	0.0	0	0.0	0	0.0	
	Sit up straight when you eat	Yes	50	100.0	25	100.0	25	100.0	NA
		No	0	0.0	0	0.0	0	0.0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Yes	50	100.0	25	100.0	25	100.0	NA
		No	0	0.0	0	0.0	0	0.0	
	Chew your food carefully	Yes	50	100.0	25	100.0	25	100.0	NA
		No	0	0.0	0	0.0	0	0.0	
	Use spoons and forks correctly	Yes	49	98.0	24	96.0	25	100.0	0.31
		No	1	2.0	1	4.0	0	0.0	

1) By chi-square test

4.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실태

1) 식사지도에 대한 지침

어린이집의 3/4 이상이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바르게 앉아 식사해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요’, ‘수저를 바르게 사용해요’와 같은 식사에절 및 식습관 형성과 관련한 식사지도에 대한 지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임에도 불구하고 식사지도에 대한 지침 보유 여부에 있어서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의 응답이 상이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바르게 앉아 식사해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요’, ‘수저를 바르게 사용해요’와 같은 식사에절 및 식습관 형성과 관련한 식사지도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4).

2) 식사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지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급식시간에 이루어지는 식사지도가 영유아의 식습관 형성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4.4점), ‘우리 어린이집은 식사지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와 ‘우리 어린이집은 식사지도가 잘 수행되고 있다’의 경우, 동의 정도가 5.0점 만점 (매우 그렇다)의 각 4.3점, 4.1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은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있다’의 경우, 3.8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

3) 식사지도 시 사용하는 문장

보육교사가 식사지도 시 사용하는 문장의 사용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보육교사는 식사에절 지도를 위해 “바른 자세로 앉아 먹어요”, “식사 전 · 후에 감사인사를 하세요” 문장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자기 식판의 음식만 먹어요” 문장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였다. 식사에절 지도를 위해 사용하는 문장 중 “입안에 음식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아요”, “식사 중에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음식을 식탁 및 옷에 흘리지 말고 깨끗이 먹어요”, 세 개의 문장은 유아반 보육교사의 사용 정도가 영아반 보육교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는 식습관 지도를 위해 “모든 반찬을 골고루 먹어요” 문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식사 속도를 다른 친구들과 맞추세요” 문장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식사속도와 관련된 문장, 즉 “밥을 빨리 먹어요”, “식사속도를 다른 친구들과 맞추세요” 문장의 사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식사과정을 지도하기 위해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오세요” 문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국이나 반찬을 었질렀을 때 선생님께 이야기해요” 문장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식습관 지도 및 식사과정을 지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장 중 “음식 씹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마세요”를 제외하고는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 간에 사용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5. 보육교사가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수행 중에 느끼는 어려움

보육교사는 ‘낮잠시간’, ‘등 · 하원’, ‘자유선택활동’ 및 ‘특기활동’의 보육활동을 수행할 때보다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수행할 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Table 5. Teachers' perception on mealtime instruction at child-care centers¹⁾

Items	Total (n = 50)		Children in charge				p ²⁾
			younger than 3 years (n = 25)		3 years or older (n = 25)		
	Mean	SD	Mean	SD	Mean	SD	
I think mealtime instruction affects on developing or improving children' eating habit	4.40	0.67	4.36	0.70	4.44	0.65	0.68
I think mealtime instruction is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duties in our child-care center	4.34	0.63	4.36	0.57	4.32	0.69	0.82
I think mealtime instruction is performed well in our child-care center (n = 49)	4.06	0.69	4.13	0.68	4.00	0.71	0.53
I think children in our child-care center have desirable eating habits	3.76	0.72	3.80	0.71	3.72	0.74	0.70

1) Each item was measured by 5-point scales ranging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2) By t-test

Table 6. Teachers' mealtime instruction at child-care centers¹⁾

Mealtime instruction	Sentences	Total (n = 50)		Children in charge				p ²⁾
				younger than 3 years (n = 25)		3 years or older (n = 25)		
		Mean	SD	Mean	SD	Mean	SD	
Eating manner	Sit up straight when you eat	4.36	0.78	4.24	0.83	4.48	0.71	0.28
	Give thanks before and after meals	4.34	0.96	4.36	0.91	4.32	1.03	0.89
	Use spoons and forks correctly	4.04	1.03	4.12	0.88	3.96	1.17	0.59
	Do not play with your food	3.64	1.05	3.56	1.08	3.72	1.02	0.59
	Don't play with your friend on the table	3.74	1.05	3.52	0.92	3.96	1.14	0.14
	Don't drop food on your clothes and the table	3.50	1.09	3.20	1.15	3.80	0.96	0.05
	Don't talk with your mouth full	3.48	0.97	3.12	0.93	3.84	0.90	0.01
	Don't speak loudly while eating	3.42	1.07	3.04	1.06	3.80	0.96	0.01
	Eat your own food not other friends' food	2.66	1.42	2.52	1.36	2.80	1.50	0.49
Eating habit	Don't be picky with your food	4.38	0.64	4.28	0.61	4.48	0.65	0.27
	Don't keep food in your mouth so long	3.52	1.05	3.36	1.08	3.68	1.03	0.29
	Finish all your food	3.52	1.13	3.32	1.07	3.72	1.17	0.21
	Eat your rice and drink the soup separately	3.06	1.11	2.96	1.10	3.16	1.14	0.53
	Eat your food quickly	2.68	0.89	2.60	1.00	2.76	0.78	0.53
	Don't place the tray into your mouth	2.64	1.31	2.56	1.33	2.72	1.31	0.67
	Don't waste and drop food on purpose that you don't want to eat	2.62	1.29	2.36	1.22	2.88	1.33	0.16
	Don't drink a lot of water during meals	2.46	1.31	2.28	1.28	2.64	1.35	0.34
	Don't make loud chewing noises	2.26	1.21	1.84	0.94	2.68	1.31	0.01
	Keep your eating pace with your friends	2.06	1.24	1.76	1.05	2.36	1.35	0.09
Eating procedure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4.86	0.45	4.88	0.44	4.84	0.47	0.76
	Raise your hand when you want more food	4.32	1.02	4.20	1.12	4.44	0.92	0.41
	After your meal, clean up your tray	4.08	1.21	3.92	1.22	4.24	1.20	0.36
	When you need help with food (fish bones, sesame leaves and big-sized side dishes), ask your teacher for help	4.02	1.08	3.88	1.20	4.16	0.94	0.36
	When you spill soup or side dishes, ask your teacher for help	3.94	1.10	3.88	1.17	4.00	1.04	0.70

1) Each item was measured by 5-point scales ranging from 1 (never using) to 5 (always using).

2) By t-test

‘현장학습’, ‘교재교구 만들기’, ‘실외활동’, ‘소집단활동’ 및 ‘대집단활동’의 보육활동보다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지 않았다. 특히 영아반 보육교사(80%)가 유아반 보육교사(46%)에 비해 낮잠시간의 보육활동보다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수행에서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수행 중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의 34%는 자신의 식사를 먹는

것에, 28%는 배식서비스 과정에 있어서의 번거로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돌보는 영유아 수의 적절성 및 도움 인력의 필요성에 있어서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보육교사의 42%는 현재 자신이 돌보는 영유아 수가 적당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반수 이상의 보육교사(66%)가 급식시간 운영에 도움을 줄 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7).

Table 7. Teachers' perceived difficulties in the food service and mealtime instruction at child-care centers

Items		Total (n = 50)		Children in charge				p ¹⁾	
				younger than 3 years (n = 25)		3 years or older (n = 25)			
		n	%	n	%	n	%		
Stress level from food service and mealtime instruction									
Level of stress from food service and mealtime instruction is higher than that from	Free play time	Yes	29	58.0	15	60.0	14	56.0	0.50
		No	21	42.0	10	40.0	11	44.0	
	Preparing teaching material	Yes	16	32.0	10	40.0	6	24.0	0.18
		No	34	68.0	15	6.0	19	76.0	
	Outside activity	Yes	22	44.0	12	48.0	10	40.0	0.39
		No	28	56.0	13	52.0	15	60.0	
	Large-group activity	Yes	23	46.0	13	52.0	10	40.0	0.29
		No	27	54.0	12	48.0	15	60.0	
	Small-group activity	Yes	22	44.0	13	52.0	9	36.0	0.20
		No	28	56.0	12	48.0	16	64.0	
	Extracurricular activity	Yes	26	52.0	15	60.0	11	44.0	0.20
		No	24	48.0	10	40.0	14	56.0	
	Nap time	Yes	34	68.0	20	80.0	14	46.0	0.06
		No	16	32.0	5	20.0	11	44.0	
	Arrival and dismissal guidance	Yes	31	62.0	17	68.0	14	56.0	0.28
		No	19	38.0	8	32.0	11	44.0	
	Field trip activity	Yes	12	24.0	6	24.0	6	24.0	0.63
		No	38	76.0	19	76.0	19	76.0	
The most difficult issue in food service and mealtime instruction									
Eating meal		16	34.0	8	33.3	8	34.8	0.89	
Troublousness in food service		13	27.7	7	29.2	6	26.1		
Caring for children		9	19.1	4	16.7	5	21.7		
Lack of nutrition knowledges		5	10.6	3	12.5	2	8.7		
Others		3	6.4	2	8.3	1	4.3		
No response		1	2.1	0	0.0	1	4.3		
The number of caring children during mealtime									
Adequate		27	54.0	14	56.0	13	52.0	0.50	
Inadequate		21	42.0	10	40.0	11	44.0		
No response		2	4.0	1	4.0	1	4.0		
Needs for assistant during mealtime									
Yes		33	66.0	16	64.0	17	68.0	0.50	
No		15	30.0	8	32.0	7	28.0		
No response		2	4.0	1	4.0	1	4.0		

1) By chi-square test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실태,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수행 중에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관악구 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b)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시간 내에 오전 및 오후 간식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영아반의 경우, 점심식사가 11시 30분에 제공되는 비율이 유아반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영아반의 오전 간식이 10시 30분에 제공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점심식사 제공되기 전까지 시간의 간격이 2시간 이내였다. 만 1세 영아의 위 용량은 평균 250ml로, 500ml 이상인 3세 유아의 위 용량의 50% 이하에 불과하므로(Lee 등

2011) 영아에게는 소량의 음식을 자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유아보다 영아에게 늦은 간식과 이른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운영 방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간식 및 식사를 먹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영아반과 유아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유아보다 숟가락을 사용하는 능력 등의 식사기술과 음식을 씹고 삼키는 섭식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Lee 등 2011) 영아반의 경우 유아반보다 긴 시간이 식사 시간으로 할애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 어린이집 급식의 배식 담당자가 대부분 보육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Chang & Ko(2007)의 연구에서 서울 및 경기지역의 어린이집 세 곳에서 유아에게 배식된 점심식사의 양을 측정한 결과, 배식량이 영양섭취기준량을 감안할 때 유아의 1회 1인 분량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등 (2000)은 유아교육기관의 간식 공급 현황 및 영양평가를 실시하였는데 1~3세 집단과 4~6세 집단 사이에 간식을 통해 제공되는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 수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한 열량 및 탄수화물 등의 영양소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섭취한 음식의 양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며 연령별 영양소 필요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영아와 유아에게 제공되는 음식량에 차이 없이 일률적인 양으로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보아 영유아의 배식을 보육교사가 수행하고 있으나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1회 식사량 및 연령에 따른 적절한 식사량을 고려하지 못한 채 배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배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연령에 따른 배식표준량이 설정되어야 하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는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여 적절한 배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보육교사 등의 배식 담당자는 음식을 식판에 미리 담아놓은 후 식판을 영아 또는 유아에게 전해주는 배식 방법 (62%)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영아반에서 이와 같은 배식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91%로 가장 많은 반면 유아반에서는 유아가 배식라인에 줄을 서서 식판에 음식을 받는 경우 (50%)가 가장 많아 영아반과 유아반 간에 배식방법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서는 식사지도 시 유아가 자율배식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Sigman-Grant 등 2008). 또한 미국의 국립급식관리기구 (National Food Service Management Institute, 2012)는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서는 유아가 섭취할 음식을 선택하고 섭취량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율배식 형태인 'Family style meal'을 권하고 있다. 영아는

신체의 성장이 완전하지 못하고 안전상 위험이 있어 영아 스스로 배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유아의 경우 영아에 비해 그 어려움의 정도가 낮으므로 어린이집은 유아반 급식에서 자율배식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유아의 자율배식에 앞서 유아가 섭취할 음식을 선택하고 알맞은 양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아를 대상으로 한 관련 지도 및 교육이 필요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는 보육교사가 이와 같은 지도 및 교육을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영유아와 급식시간에 함께 앉아 동일한 메뉴의 급식을 먹고 있었다. Handy & Raudenbush(2000)의 연구에서 미국 유치원생에게 새로운 음식을 수용하도록 돕는 방법 중 교사가 유치원생과 같은 메뉴를 먹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링 방법이 보상(Reward) 또는 강요(Insist) 등의 방법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처럼 보육교사가 영유아와 함께 앉아 동일한 음식을 먹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모든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바르게 앉아 식사해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요' 등과 같은 식사지도에 대한 지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식사지도 지침의 보유여부에 대해서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가 상이하게 응답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실제적으로 문서화되거나 공유되고 있는 식사지도 지침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본 연구결과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침은 교사의 지도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이므로, 식사지도 지침을 통해 교사는 식사지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지도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식사지도와 관련한 지침을 세워 근무하는 보육교사 모두가 지침을 공유하고, 지침에 따라 식사지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추후 이와 관련한 연구 조사를 실시할 때는 식사지도 지침 보유 여부를 문서화된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나 모든 보육교사가 공유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어린이집의 식사지도 지침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식사지도를 위하여 '바른 자세로 앉아서 식사하세요', '모든 반찬을 골고루 먹어요',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오세요' 등의 문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어린이집의 식사지도 지침의 보유 및 수행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바르게 앉아 식사해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요' 등과 같은 식사지도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보육교사

가 급식시간에 많이 사용하고 문장들로 이루어 볼 때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신체적·인지적 발달 능력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지도 시 사용하는 문장으로 제시된 24개의 문장 중에 “음식을 식탁 및 옷에 흘리지 말고 깨끗이 먹어요”, “입안에 음식물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아요”, “식사 중에 큰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음식 먹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마세요”를 포함한 4개의 문장을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정도에 있어서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ho 등 (2010)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4/5이상이 식사지도에 대한 연수 교육 경험이 없었으며, 식사지도의 정보 출처가 잡지(34.2%), 자신의 경험(33.1%), 인터넷(23.7%), 교사 연수(8.3%)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식사지도와 관련하여 교육 받을 기회가 충분치 않았으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식사예절 및 식습관 지도 등 영유아의 식사지도를 위해 많이 사용했던 문장을 토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영유아의 언어 발달과 성장발달 능력을 고려한 식사지도의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하겠다. 또한 이러한 지침은 보육교사를 위한 보수교육의 일부로 포함시켜 보다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사지도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보육교사가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수행 시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수행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을 어린이집의 다른 보육활동과 비교해 본 결과, 전체 보육교사의 과반수가 ‘자유선택활동’, ‘특기활동’, ‘낮잠시간’, ‘등·하원’의 보육활동보다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수행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미국 초등학교 교사 11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교사가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과의 관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Yoon 2002). 선행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보육교사가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수행에 보육교사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춘다면 급식시간 중 보육교사와 영유아간의 상호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체계적인 배식서비스 및 식사지도에 대한 지침 제시 또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 등으로 보육교사가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수행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식사지도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영양사 등의 전문가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관련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보육

교사를 위한 교육 및 지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아와 유아는 성장발달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배식서비스와 식사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배식서비스와 교사가 참여하는 배식서비스에 있어 급식이 제공되는 시간과 보육교사의 배식방법을 제외하고는 영아반과 유아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식사지도에서도 식사예절 및 식습관 지도를 위해 사용하는 일부 문장을 제외하고는 영아반과 유아반 간에 차이가 없었다. 영아는 유아에 비해 소화 및 저작능력이 낮으므로 어린이집은 영아반의 급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영아반 교사는 이를 고려하여 배식 전 영아가 음식을 먹기 쉽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식사지도 시에도 보육교사는 영아와 유아의 신체적·인지적 발달 수준이 다를 것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문장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관악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나 설문응답률이 낮아 관악구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가 배식서비스에 참여하는 실태를 비교 조사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배식서비스 및 식사지도의 지침 개발뿐 아니라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관악구 내 영아반과 유아반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실태, 배식서비스 및 식사지도 수행 중에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설문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12월에 실시되었으며, 25곳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 각 한 명, 총 50명의 보육교사의 응답을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설문에 응한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유형은 국공립이 40%, 민간이 48%, 가정이 12%였다. 보육교사는 평균 10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었으며, 돌보는 평균 영유아 수에 있어 영아반(6명)과 유아반(12명)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어린이집에서 오전 간식은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점심은 12시부터 12시 30분 사이에, 오후 간식은 3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제공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오전 간

식을 먹는데 영아반에서는 10분~15분(44%)이, 유아반에서는 15분~30분(52%)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점심식사는 영아반과 유아반 모두에서 30분~45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54%)가 가장 많았고, 오후 간식은 영아반과 유아반 모두에서 15분~3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62%)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간식(100%)과 점심(94%)을 교실에서 먹고 있었다.

3. 보육교사가 간식배식을 준비하는 데는 10분 미만인(62%), 점심 배식을 준비하는 데는 10분~15분이 소요되는 경우(40%)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배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육교사(92%)였다. 영아반에서는 식판에 음식을 미리 담아 전달하는 배식방법(91%)이 가장 많았고, 유아반에서는 유아들을 배식라인에 줄을 세워 음식을 배식하는 방법(5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배식방법 선택에 있어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앉아(94%) 동일한 간식메뉴(오전 간식 96%, 오후 간식 100%)와 점심메뉴(75%)를 먹고 있었다.

4.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식사지도가 영유아의 식습관 형성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5점 척도의 4.4점)’, ‘우리 어린이집은 식사지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4.3점)’, ‘우리 어린이집의 식사지도는 잘 수행되고 있다(4.1점)’는 문장에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4 이상의 어린이집은 식습관 및 식사예절 형성과 관련한 식사지도 지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모든 어린이집에서 식사지도를 수행하고 있었다.

5.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급식시간 중 식사예절 및 식습관, 영유아의 급식과정을 지도하기 위한 문장의 사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는 식사예절 지도를 위해 “바른 자세로 앉아 먹어요”의 문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식습관 지도를 위해 “모든 반찬을 골고루 먹어요”의 문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영유아의 식사과정을 지도하기 위한 문장 중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오세요”의 사용 정도가 가장 많았다.

6. 보육교사가 배식서비스 참여 및 식사지도 중에 느끼는 스트레스는 ‘낮잠시간’, ‘등·하원’, ‘자유선택활동’ 및 ‘특기활동’의 보육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배식서비스 참여와 식사지도에 있어서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의 차이가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영아와 유아는 소화 및 섭식능력, 식습관 형성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보육교사는 배식서비스에 참여하고 식사지도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에게 다양한 교육 및 기회를 제공하여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배식서비스 및 식사지

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현장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배식서비스 및 식사지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Bae HJ, Lee HY, Ryu K (2009): Field assessment of food safety management at preschool foodservice establishments. *Korean J Food Cookery Sci* 25(3): 283-296
- Chang HJ, Ko ES (2007): The effectiveness of nutrition education provided by dietitian in child care centers. *Korean J Community Nutr* 12(3): 299-309
- Chang HJ, Park YJ, Ko ES (2008): Current and future foodservice management performance in child-care centers. *J Korean Diet Assoc* 14(3): 229-242
- Choi EM, Sin EK, Jung YY, Lee NH, Choi CH, Jung HS, Cho EJ, Sung HI, Lee HY, Lee EJ, Park HK, Kim SH, Lee YK (2008): Status of food and nutrient intakes by spot investigation of children's foodservice establishments. *Proceeding of the 2008 Autumn Symposium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Nutrition*, p.118
- Chung MR, Lee YM, Lee KW (2000): A study on the nutritional evaluation and food service managements of snack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38(4): 99-113
- Hendy HM, Raudenbush B (2000): Effectiveness of teacher modeling to encourage food acceptance in preschool children. *Appetite* 34(1): 61-76
- Jennings A, McEvoy S, Corish C (2011): Nutritional practices in full-day-care pre-schools. *J Human Nutr Diet* 24(3): 245-259
- Lee KH, Park DY, Lee IY, Hong JY, Choi BC, Bae SS (2001): The survey on the nutrition education and food service managements system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in Yongdungpo. *JKorean Diet Assoc* 7(2): 167-174
- Lee YM, Jung BR, Bae SY (2007): Health and nutrition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Yangseowon
- Lee YS, Lim HS, Ahn HS, Chang NS (2011): Nutri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Kyomunsa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a): Statistics of childcar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b): Guidance of childcare center
- National Food Service Management Institute (2012): Care connection: Happy mealtimes. Available from <http://www.nfsmi.org/documentlibraryfiles/PDF/20100917032729.pdf> [cited 2012 April 22]
- Rho JO, Lee SI, Lee JS (2010): A study on the dietary behaviors of day-care center teachers and their meal attitude education during meal time in Jeonju area of Korea. *Korean J Food Nutr* 23(3): 342-351
- Sigman-Grant M, Christiansen E, Brannen L, Fletcher J, Johnson SL (2008): About feeding children: Mealtimes in child-care centers in four western states. *J Am Diet Assoc* 108: 340-346
- Song ES, Kim EG (2010): The foodservice sanitation status of the child care centers at Asan city in Chungnam. *Korean J*

- Community Nutr* 15(6): 806-819
- Song J, Heo YR (2010): A study on nursery school teacher's knowledge and education of nutrition care in Gwang-ju. *Korean J Community Nutr* 15(2): 159-168
- Statistics Korea (2011):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cited 2011 November 16]
- Yoon JS (2002): Teacher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stress, negative affect and self-efficacy. *Soc Behav Personal* 30(5): 458-494
- You GJ, Cho HJ (2009): Introduction of infan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Gongdong chae*, pp.15-54, 349-390